

## 中進國에 있어서의 翻譯의 潛在的 役割

趙 淳 卓★

편집자 주 : 이 글은 1970年 12月 3日~5日 忠南儒城에서 개최된 “國際知識交流를 위한 翻譯體制에 관한 세미나”에서 행한 한 演說文이다.

第2次 世界大戰이 끝난 後 지난 25年間に 美國과 西歐羅巴의 大部分의 國家와 極東의 日本은 未曾有의 經濟成長을 보았었는데 그 原因은 科學知識의 進歩에 있다고들 말하고 있다.

그 사이에 世界는 제트 飛行機와 原子核分裂로 크게 脚光을 받은 科學과 技術의 威力에 壓倒되었었고, 다시 새롭게 電子計算機와 宇宙科學으로 代表될 科學이 世界를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지 豫測하기조차 어렵게 되고 있다.

Derek J. de Solla Price가 1961年에 한 분석에 의하면 有史以來 地球上에서 活動하던 科學者들 中에서 그 90%가 그 당시 生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단히 粗雜한 推理를 한다면 現在 人類가 갖고 있는 科學知識의 大部分이 지금 生存하고 있는 科學者의 머리와 손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美國會圖書館에는 科學과 技術에 관한 文獻이 第2次 大戰以後에 2倍로 增加하였고, 또 全世界의 化學에 關係된 研究를 收錄한 Chemical abstracts에서 論文의 數가 每八年半 마다 倍씩 增加하고 있다.

全世界에서 現在 發表된 科學과 技術의 論文의 數를 每年 150萬에서 500萬이 될 것이라 推算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科學知識의 增加趨勢가 얼마나 빠른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低開發國 또는 開發途上國으로 呼稱된 大部分의 國家들과 世界人口의 多大數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國家의 國民에게는 이와 같은 科學知識의 發展도 江 건너 불보기 格 밖이 되지 못하고 있다. 常識的인 分類로는 低開發國은 人口 1人當의 GNP의 크기로써 規定지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들 低開發國을 모두 同質的인 한 가지 類型으로 取扱한 것은 잘못된 것일 것이다. J.K. Galbraith는 이들을 세 가지 類型

으로 分類해 보고 있다. 第1型은 아프리카型으로서 그 特色으로는 訓練된 技術者, 管理者와 行政家가 不足하여 公共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할 수 없는 國家들을 包含시키고 있다. 第2型은 라틴 아메리카型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國民의 大部分이 매우 貧困하지만 小數派인 富裕層이 存在하며, 그 周圍에는 法律家, 技師, 科學者, 經濟學者 및 管理者가 이들 富裕層하고 提携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非機能的이며 名實 共히 보람있는 經濟的 서어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報酬가 많은 實業家는 가장 훌륭한 일을 한 者가 아니고 그의 政治的 位置나 特權을 利用하여 獨占企業을 한 者들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 엘리트들이 政治勢力과 뒤범벅이 되어 腐敗의 溫床 위에 生을 亨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第3型은 南亞細亞型이며 技術과 經營管理的 基盤은 상당히 튼튼하며 非機能的 所得도 憂慮할 程度까지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人口增殖力이 높고 큰 人口密度를 갖고 있어서 人當 生産性과 所得이 낮은 채로 남아 있어 資本의 形成이 不可能하게 하고 있다. 具體的인 어떤 低開發國이 Galbraith의 어떤 類型이며 또는 몇 개 類型의 結合된 狀態인 지는 社會科學者의 研究에 期待할 수 밖에 없으나, 이들 모두에게 飛躍的인 現代의 科學과 技術의 惠澤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點에는 大同小異할 것이다. 低開發國이 그의 後進性을 脫皮하여 中進國으로 成長하고 더 나아가서 先進國의 隊伍에 끼일 수 있는 方途가 무엇인지는 여러 學問分野의 專門家들에게서 相當히 差異가 있는 意見이 있다. 그러하지만 共通적으로 나타난 主張은 自然科學과 社會科學을 包含한 넓은 意味의 科學을 移植하여 成長시킨다는 것이다.

近代科學이 西歐羅巴에서 싹을 틔운 것은 17世紀의 後半에서 18世紀 初 사이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現代의 思想의 潮流中 큰 흐름이 이 時期에 싹을 트고 있다는 事實과 비추어 볼 때 興味있는 일이다. 卽이 무렵에 이탈리아의 어떤 哲學者는 “人間社會는 人間의

\* 西江大學 教授 (理學博士)

作品이다.”라고 宣言하고 있다. 現代的 基準에서 評한다면 이와 같은 생각이 奇異한 것이 아니지만 當時로는 過激한 主張이었다. 그 때까지만 하여도 사람들은 地上의 森羅萬像이 神의 意志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獨逸의 詩人이 主張한 것으로서 “이 세상은 상품으로 높다랗게 채워져 있는 商店과 같다. 누구나 이 商品을 살 수는 있지만 勞動의 代價를 치루어야만 그것이 可能하다.”는 말이었다.

이들 두 觀點은 自然에 대하여 人間自身을 對峙시키고 自然에 勝者로서 臨하려는 現代西歐人에게 普遍的인 것이며, 特히 科學者들이 強하게 主張하고 있는 것들이다. 생각해 보건대 低開發國이나 先進國이나 모두 各者의 特有한 傳統과 文化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傳統과 文化가 어떤 것이 더 優秀하고 어떤 것이 덜 優秀하다고는 人間의 긴 未來史까지 내다 볼 때 간단히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現時點에 局限하여 보면 어떤 傳統과 文化에서는 先進國이 되었고 그와 相異한 傳統과 文化에서 低開發國이 나오게 되었으므로 低開發國이 先進國을 模倣하여 거기에 뒤따라 가려면 傳統과 文化의 흐름에 變化를 주지 않고는 不可能할 것이다.

傳統과 文化를 濃縮시켜 보면, 거기에서 나온 最終의 結晶體는 人生에 대한 價値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開發途上國이 先進國에 뒤따라 가기 위하여 近代科學을 移植하고 成長시키기 위하여는 國民이 갖고 있는 價値觀을 西歐化시키거나 在來의 價値觀과 近代科學과의 사이에 調和된 關係를 發見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들 두 가지가 모두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그 한 가지 方法만으로 成功하기란 어려운 것이고 兩面에서 努力을 하여야 할 줄 생각된다.

近代的인 科學과 技術을 移植시키는 첫 段階는 先進國에 留學生을 派遣하거나 先進國의 科學者를 초청하여 엘리트 候補를 教育시키는 것이다. 美國이나 西歐의 專門的 教育은 大部分이 既存技術을 個個의 境遇에 適用할 수 있도록 訓練시키는 데 있다. 단지 少數의 몇 個 大學에서 그들의 學問에 대한 哲學的, 理論的 혹은 研究를 통한 接近方法을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接近方法도 他社會의 必要性에 관련하는 各分野의 技術이 갖는 새로운 意味와 縮小性을 發見할 수 있는 實務的 科學者를 輩出하자는 것이 아니고, 技術과 科學의 尖端을 開發하는 指導者를 養成하자는 目的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先進諸國에서 歸國한 留學生이나 초청된 先進諸國의 科學者가 그대로 開發途上國의 要求를 滿足시킬 人士가 될 수도 없고 또 必要한 엘리

트를 養成할 수 있는 適任者도 아니다. 이들 人士 中에서 該當 開發途上國의 要求에 맞는 科學과 技術의 研究와 教育의 研究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科學의 移植이 시작될 것이다. 이들 初創期 人士들의 科學的 思考는 各自가 訓練 받은 先進 諸國語를 通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外國研究文獻의 翻譯은 그다지 큰 意味가 없는 것이다. 美國과 같은 先進諸國에서 言語障壁으로 世界에 發表된 論文의 50% 밖에 利用할 수가 없어서 翻譯이 情報傳達에서 重要한 位置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開發途上國이 當面한 問題는 이것과는 質이 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보다는 先進國에서 專門家 養成을 위하여 著述된 教材와 國民의 中間指導者 以上을 계몽하기 위한 敎養書籍의 翻譯이 必要할 것이다. 모든 學問과 科學的 技術은 個個 學者의 觀點의 差異에 따라서 그들이 著述한 書籍과 論文이 어떤 한 쪽으로 偏重하게 될 것은 當然한 일이다. 그러므로 開發途上國의 學者가 科學과 技術을 導入할 때 첫째 할 일은 書籍의 選擇에 있다.

選擇된 書籍을 翻譯으로 自國語로 옮기려 할 때 學術語의 制定, 整備가 必要할 것이다. 科學과 技術의 傳統이 없는 國語에 無理가 없는 最少限의 變形을 加하여 새로운 科學과 技術에 適用시킨다는 것은 翻譯者에게 높은 水準의 國語知識과 科學知識을 要求할 것이다. 先進國에서 科學文獻의 翻譯者에게 中間程度의 知識人을 要求한데 比하여 開發途上國의 翻譯者는 最高級의 知識人이 必要한 것이다.

開發途上國이 科學과 技術의 移植에서 첫 段階를 成功的으로 修了하여 研究者와 專門家를 相當한 數를 保有하는 中進國에 到達하게 되었다고 하자. 大部分의 專門家와 研究者는 國內教育으로 養成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言語의 障壁이 새로운 知識의 習得에 적지 않게 作用한다. 이들 專門家は 學校教育에서 第一外國語 또는 第二外國語에 相當히 能通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外國語로 배운 言語로는 文字間에 存在하는 玄妙한 意味까지를 理解하기에는 充分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단계에서 學術書籍과 論文의 翻譯은 科學과 技術을 成長시키는 데 中樞的 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때도 文獻의 選擇은 가장 重要한 問題로서 擡頭하게 될 것이다.